

# 치면세마실습실 방문자의 스켈링 행태에 관한 분석

강용주 · 장계원 · 정미경

진주보건대학

## Oral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clients receiving scaling

Yong-Ju Kang · Gye-Won Jang · Mi-Kyoung Jeong

*Dept. of Dental hygiene, Jinju Health College*

---

###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self-reported oral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s among patients receiving scaling services and provide guidelines for developing preventive programs for dental disease.

**Methods** : Th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sample of 462 receiving voluntary scaling service in the practice lab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J health college.

**Results** : 1. Of all participants, 261(56.5%) reported that they received scaling services in the past. 134 of the women (62.6%) and 127 of the men (51.2%) received scaling services 2. Analysis of the regular scaling attendance rates showed that only 16.2% of all participants received routine scaling. 13.7% of the male participants and 19.2% of the female participants received scaling on a regular basis. 3. Participants commonly reported "self-motivation" and "suggestion by others" (37.9% and 34.1%, respectively) as the main reasons for obtaining scaling services. 4. The main reasons for not obtaining scaling services were "I did not know about scaling" (39.3%), "I don't feel it is necessary" (27.4%) and "because I am scared" (20.9%). More men (42.1%) than women (35%) reported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scaling. 5. Of the total participants, 41.6% report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at a moderate level, and 30.3% report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oral health at a high level. 6. Of the participants who responded "very concerned about oral health" and "extremely concerned about oral health", the majority obtained scaling service (70.2% and 84.2%, respectively).

**Conclusions** : The study suggested that researchers and national health authorities should develop routine scaling, preventive dental care, and oral health programs for oral health promotion and disease prevention. (J Korean Soc Dent Hygiene 2011;11(5):773-782)

**Keywords** : concern for oral health, periodontal disease, scaling

**색인** : 구강건강관심도, 스켈링, 치주질환

---

## 1.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개인적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

으며,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구강건강이다<sup>1)</sup>. 우리는 건강과 그 중요성에 대해 수없이 언급하면서 생활하고 있고,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다. 현재 자신의 건강상

---

교신저자 : 강용주 우) 660-757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142번지 진주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전화 : 055-740-1855, 010-2841-8081 Fax : 055-743-3010 E-mail : 0408kang@hanmail.net

접수일-2011년 9월 9일 수정일-2011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2011년 10월 20일

태에 따라 건강관리 방법이 달라지며, 질환에 이환되었을 때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회복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sup>2)</sup>. 이에 전신건강의 일부로 구강건강은 저작과 발음 및 심미기능에 관여하는 인체의 중요한 소화기관으로서 행복을 영위하는 필수요소<sup>3)</sup>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건강한 구강을 위해서는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상실의 주요 원인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과 같은 대표적인 구강질환의 효과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다빈도 질병순위를 살펴보면, 모든 질병중에서 치아우식증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치주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이 여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5)</sup>.

치주질환은 치은출혈과 종창, 치은퇴축,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의 파괴 등으로 치아주위조직의 점진적 파괴와 치아상실을 초래하며,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며,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만성질환으로 대부분의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sup>6)</sup>. 또한 소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구강 내에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으로서, 유년기에는 비교적 경증의 치주질환이 드물게 발생하나 청년기로부터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하여 성인에서는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질환이다<sup>7)</sup>. 우리나라 35~44세 연령 군에서 치주조직이 건강한 사람의 비율은 21.8%에 불과하고, 치석부착자의 비율은 43.7%로 보고되었으며<sup>8)</sup>, 성인 10명 중 7명이 치주질환을 앓고 있고, 40대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구강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서 노년에 구강건강이 파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sup>10)</sup>. 치아우식증의 경우 몇몇 치아에 국한되고, 치아를 지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존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하여, 잇몸질환의 경우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상대적으로 많은 치아를 동시에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환자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 환자가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병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어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므로 치주질환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1)</sup>. 심<sup>12)</sup>의 연구에서 치주질환의 경우 조기발견 및 치료보다는 적절한 예방관

리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되어 치주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질환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치면세균막의 관리가 중요하다. 치면세균막은 석회화의 과정을 거쳐 치석이 되고, 이러한 치석은 치주질환을 더욱 가속화시켜 구강건강을 악화시킨다<sup>13)</sup>.

치주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정기적인 스켈링이 매우 중요하다. 스켈링이란 치아표면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의 원인이 되는 치면세균막, 치석, 음식물잔사, 외인성색소 등의 국소적 요인을 기계적으로 제거하여 구강병을 예방하고<sup>2)</sup>, 조기치료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속 치주치료를 위한 전 단계 처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sup>11)</sup>. 또한 윤 등<sup>14)</sup>은 정기적인 스켈링을 통하여 다른 구강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치아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스켈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송<sup>15)</sup>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에서 치석침착이 적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스켈링은 치아상실의 원인이 되는 치주질환의 예방 및 조기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J보건대학 치면세마 실습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스켈링 경험 및 정기적 스켈링 여부,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 스켈링 동기,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등 지역주민들의 스켈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치주질환을 관리하고 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1년 4월부터 2011년 6월 3일까지 J보건대학 치위생과 치면세마 실습실 방문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500부의 설문지 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38부를 제외시킨 총 46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2.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연구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462	백분율(%)
성별	남	248	53.7
	여	214	46.3
연령	29세 이하	315	68.2
	30-39세	26	5.6
	40-49세	55	11.9
	50세 이상	66	14.3
거주지	대도시	41	8.9
	중소도시	362	78.4
	군·읍지역	27	5.8
	면지역	32	6.9
흡연 여부	흡연	68	30.1
	비흡연	193	69.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여부, 정기적 스켈링 여부,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스켈링 경험여부의 관계는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검정통계량의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 3. 연구성적

####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53.7%, 여자가 46.3%였고, 연령은 29세 이하가 6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78.4%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69.9%가 흡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51.2%가 스켈링을 경험하였고, 여자의 경우 62.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의 경우 44.1%가 경험하였고, 30~39세의 경우 73.1%가 경험하

였으며, 40~49세의 경우 85.5%가 경험하였고, 50세 이상의 경우 8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61.0%, 중소도시의 경우 57.5%, 군·읍지역 44.4%, 면지역 50.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라 비흡연자의 경우 48.9%가 경험하였고 흡연자의 경우 59.8%가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5$ ). 또한 전체대상자의 56.5%가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켈링 여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켈링 여부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13.7%, 여자의 경우 19.2%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의 경우 10.8%, 30~39세의 경우 32.1%, 40~49세의 경우 25.5%, 50세 이상의 경우 31.8%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22.0%, 중소도시의 경우 16.0%, 군·읍지역의 경우 14.8%, 면지역의 경우 12.5%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자의 경우 16.5%, 비흡연자의 경우 16.1%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16.2%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

특성	구분	스켈링 경험		p
		있음	없음	
성별	남	127(51.2)	121(48.8)	.015*
	여	134(62.6)	80(37.4)	
연령	29세 이하	139(44.1)	176(55.9)	.000***
	30~39세	19(73.1)	7(26.9)	
	40~49세	47(85.5)	8(14.5)	
	50세 이상	56(84.8)	10(15.2)	
거주지	대도시	25(61.0)	16(39.0)	.455
	중소도시	208(57.5)	154(42.5)	
	군·읍지역	12(44.4)	15(55.6)	
	면지역	16(50.0)	16(50.5)	
흡연 여부	흡연	68(48.9)	71(51.1)	.032*
	비흡연	193(59.8)	130(40.2)	
합계		261(56.5)	201(43.5)	462(100)

\*\*\* p&lt;.001, \*\* p&lt;.01, \* p&lt;.05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기적 스켈링 여부

특성	구분	정기적 스켈링		p
		예	아니오	
성별	남	34(13.7)	214(86.3)	.073
	여	41(19.2)	173(80.8)	
연령	29세 이하	34(10.8)	281(89.2)	.000***
	30~39세	6(32.1)	20(76.9)	
	40~49세	14(25.5)	41(74.5)	
	50세 이상	21(31.8)	45(68.2)	
거주지	대도시	9(22.0)	32(78.0)	.714
	중소도시	58(16.0)	304(84.0)	
	군·읍지역	4(14.8)	23(85.2)	
	면지역	4(12.5)	28(87.5)	
흡연 여부	예	23(16.5)	116(83.5)	.502
	아니오	52(16.1)	271(83.9)	
합계		75(16.2)	387(83.8)	462(100)

\*\*\* p&lt;.001, \*\* p&lt;.01, \* p&lt;.0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동기

특성	구분	스켈링 동기					p
		본인결정	주위권유	치과권유	광고	기타	
성별	남자	40(31.5)	46(36.2)	33(26.8)	1(0.8)	6(4.7)	.243
	여자	59(44.0)	43(32.1)	27(20.1)	0(0.0)	5(3.7)	
연령	29세 이하	33(23.7)	58(41.7)	38(27.3)	1(0.7)	9(6.5)	.000***
	30~39세	14(73.7)	3(15.8)	2(0.5)	0(0.0)	0(0.0)	
	40~49세	19(40.4)	17(36.2)	9(19.1)	0(0.0)	2(4.3)	
	50세 이상	33(58.9)	11(19.6)	12(21.4)	0(0.0)	0(0.0)	
거주지	대도시	5(20.0)	11(44.0)	8(32.0)	0(0.0)	1(4.0)	.541
	중소도시	83(39.9)	71(34.1)	45(21.6)	1(0.5)	8(3.8)	
	군읍지역	4(33.3)	3(25.0)	3(25.0)	0(0.0)	2(16.7)	
	면지역	7(43.8)	4(25.0)	5(31.3)	0(0.0)	0(0.0)	
흡연 여부	예	26(38.2)	22(32.4)	15(22.1)	0(0.0)	5(7.4)	.617
	아니오	73(37.8)	67(34.7)	46(23.8)	1(0.5)	6(3.1)	
합계		99(37.9)	89(34.1)	61(23.4)	1(0.4)	11(4.2)	261(100)

\*\*\* p<.001, \*\* p<.01, \* p<.05

###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동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동기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주위의 권유’가 36.2%, 여자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의 경우에 ‘주위의 권유’가 41.7%, 30~39세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73.8%, 40~49세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40.4%, 50세 이상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주위의 권유’가 44.0% 중소도시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39.9%, 군·읍지역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33.3%, 면 지역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43.8%로 나타났다. 흡연 여부에 따라 본인의 결정이 각각 38.2%와 37.8%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38.1%가 ‘본인의 결정’으로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의 권유’가 34.1%로 나타났다(표 4).

###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를 살펴

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잘 몰라서’가 42.1%, 여자의 경우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의 경우에 ‘잘 몰라서’가 39.2%, 30~39세의 경우 ‘잘 몰라서’가 71.1%, 40~49세의 경우 ‘겁이나서’ 37.5%, 50세 이상의 경우 ‘필요성 못 느낌’이 50.0%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잘 몰라서’ 43.8% 중소도시의 경우 ‘잘 몰라서’ 39.6%, 군·읍지역의 경우 ‘잘 몰라서’ 53.3%, 면지역의 경우 ‘필요성 못 느낌’이 31.4%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자의 경우 38.0%와 비흡연자의 경우 40.0%가 ‘잘 몰라서’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39.3%가 ‘잘 몰라서’, 27.4%가 ‘필요성 못 느껴서’, 20.9%가 ‘겁이나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5).

###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살펴 보면, 성별에 따라 남자의 경우 ‘보통’이 42.7%, 여자의 경우 ‘보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29세 이하의 경우 ‘보통’이 46.7%, 30~39세의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

특성	구분	스켈링 경험 없는 이유					기타	p
		필요성 못 느낌	겉이 나서	비싸서	시간이 없어서	잘 몰라서		
성별	남	39(32.2)	17(14.0)	3(2.5)	9(7.4)	51(42.1)	2(1.7)	.034
	여	16(20.0)	25(31.3)	3(3.8)	8(10.0)	28(35.0)	0(0.0)	
연령	29세 이하	48(27.3)	36(20.5)	5(2.8)	16(9.1)	69(39.2)	2(1.1)	.062
	30-39세	0(0.0)	1(14.3)	1(14.3)	0(0.0)	5(71.4)	0(0.0)	
	40-49세	2(25.0)	3(37.5)	0(0.0)	1(12.5)	2(25.0)	0(0.0)	
	50세 이상	5(50.0)	2(20.0)	0(0.0)	0(0.0)	3(30.0)	0(0.0)	
거주지	대도시	4(25.0)	4(25.0)	0(0.0)	1(6.3)	7(43.8)	0(0.0)	.006
	중소도시	43(27.9)	31(20.1)	5(3.2)	14(9.1)	61(39.6)	0(0.0)	
	군·읍지역	3(20.0)	2(13.3)	0(0.0)	0(0.0)	8(53.3)	2(13.3)	
	면지역	5(31.3)	5(31.3)	1(6.3)	2(12.5)	3(18.8)	0(0.0)	
흡연	흡연	21(29.6)	15(21.1)	0(0.0)	7(9.9)	27(38.0)	1(1.4)	.554
여부	비흡연	34(26.2)	27(20.8)	6(4.6)	10(7.7)	52(40.0)	1(0.8)	
합계		55(27.4)	42(20.9)	6(3.0)	17(8.5)	79(39.3)	2(1.0)	201(100)

\*\*\* p&lt;.001, \*\* p&lt;.01, \* p&lt;.05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특성	구분	구강건강관심도					p
		매우 관심 있음	관심 있음	보통	관심 없음	매우 관심 없음	
성별	남	23(9.3)	63(25.4)	106(42.7)	42(16.9)	14(5.6)	.027
	여	15(7.0)	77(36.0)	86(40.2)	33(15.4)	3(1.4)	
연령	29세 이하	19(6.0)	72(22.9)	147(46.7)	62(19.7)	15(4.8)	.000
	30-39세	1(3.8)	12(46.2)	10(38.5)	3(11.5)	0(0.0)	
	40-49세	6(10.9)	24(43.6)	18(32.7)	7(12.7)	0(0.0)	
	50세 이상	12(18.2)	32(48.5)	17(25.8)	3(4.5)	2(3.0)	
거주지	대도시	8(19.5)	14(34.1)	11(26.8)	5(12.2)	3(7.3)	.011
	중소도시	27(7.5)	112(30.9)	152(42.0)	62(17.1)	9(2.5)	
	군·읍지역	1(3.7)	8(29.6)	11(40.7)	3(11.1)	4(14.8)	
	면지역	38(8.2)	140(30.3)	192(41.6)	75(16.2)	17(3.7)	
흡연	흡연	12(8.6)	32(23.0)	62(44.6)	22(15.8)	11(7.9)	.008
여부	비흡연	26(8.0)	108(33.4)	130(40.2)	53(16.4)	6(1.9)	
합계		38(8.2)	140(30.3)	192(41.6)	75(16.2)	17(3.7)	462(100)

\*\*\* p&lt;.001, \*\* p&lt;.01, \* p&lt;.05

표 7.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스켈링 경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	스켈링 경험		p
	있음	없음	
매우 관심 있음	32(84.2)	6(15.8)	.000***
관심 있음	98(70.0)	42(30.0)	
보통	96(50.0)	96(50.0)	
관심 없음	28(37.3)	47(62.7)	
매우 관심 없음	7(41.2)	10(58.8)	
합계	261(56.5)	201(43.5)	462(100)

\*\*\* p<.001, \*\* p<.01, \* p<.05

경우 '관심 있음'이 46.2%, 40~49세의 경우 '관심 있음'이 43.6%, 50세 이상의 경우 '관심 있음'이 48.5%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 '관심 있음'이 34.1%, 중소도시의 경우 '보통'이 42.0%, 군·읍지역의 경우 '보통'이 40.7%, 면지역의 경우 '보통'이 41.6%로 나타났다. 흡연여부에 따라 흡연자의 경우 '보통'이 44.6%, 비흡연자의 경우 '보통'이 40.2%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의 경우 41.6%가 '보통', 30.3%가 '관심 있음'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 3.7.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스켈링 경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스켈링 경험을 살펴보면, 구강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경우 84.2%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관심이 있는 경우 70.0%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보통인 경우 50.0%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 37.3%가 매우 관심이 없는 경우 41.2%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 4. 총괄 및 고안

치주질환은 성인의 치아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며 중대 구강병의 일부로 청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구강질환으로 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스켈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스켈링에 대한 인지도와 스켈링 수진율을 높이는 치주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치면세마실습실 방문자의 스켈링에 대한 실태와 인식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스켈링 경험률은 56.5%로 정<sup>11)</sup>의 연구에서 37.4%, 정 등<sup>16)</sup>의 연구에서 51.7%보다 높고, 윤 등<sup>14)</sup>의 연구에서 68.6%,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76.8%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켈링 경험률은 성별에서 남자 51.2%, 여자 62.6%로 여자의 스켈링 경험률이 높았고 이는 여자의 스켈링 경험률에 대한 박 등<sup>18)</sup>의 연구에서 77.3%, 정 등<sup>16)</sup>의 연구에서 67.5%보다 높았고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87.8%인 것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에서 대도시 61.0%, 중소도시 57.5%, 군·읍지역 44.4%, 면지역 50.0%로 나타났다. 이는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대도시 76.6%, 중소도시 57.5%, 군·읍지역 50.0%, 면지역 50.0%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 군·읍 및 면지역일수록 비교적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적고 구강진료기관과의 거리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군·읍면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교육의 기회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흡연여부에서 흡연자 48.9%, 비흡연자 59.8%로 나타났다. 이는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흡연자 67.9%, 비흡연자

79.0%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흡연자보다 비흡연자의 스켈링 경험률이 높은 것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과 스켈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 스켈링 여부는 조사대상자의 16.2%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 등<sup>14)</sup>의 연구에서 24.4%와 같이 매우 낮게 나타나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김 등<sup>19)</sup>의 연구에서 자신의 구강상태에 관해 민감하게 심각성을 느끼거나, 스켈링의 중요성을 인지할수록 스켈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인 치과방문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스켈링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아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스켈링을 받은 동기는 '본인의 결정'이 37.9%, '주위의 권유'가 34.1%, '치과의 권유'가 23.4%로 나타났다. 이는 윤 등<sup>14)</sup>의 연구에서 '본인의 결정'이 54.5%, '치과의 권유'가 33.8%, '주위의 권유'가 7.3%로 나타났고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치과의 권유'가 51.2%, '본인의 결정'이 33.2%, '주위의 권유'가 9.8%로 나타나 주로 본인의 결정에 의해 스켈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인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과방문 시 스켈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39.3%,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5.4%, '겉이 나서'가 20.9%, '시간이 없어서'가 8.5%, '비용이 비싸서'가 3.0%, '기타'가 1.0%로 나타났다. 이는 윤<sup>20)</sup>의 연구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47.3%, '비용이 비싸서' 38.7%, '겉이 나서' 29.3%,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45.2%, '아플까봐' 19.2%, '비싸서' 3.2%와 같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윤<sup>20)</sup>연구와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와 같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소 낮게 나타나 대상자의 소득수준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 등<sup>16)</sup>의 연구와 김<sup>21)</sup>의 연구에서 비용이 비싸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와 박<sup>22)</sup>의 연구에서 예방적 치석제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스켈링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점을 지

적한 바와 같이 예방적 치석제거의 건강보험급여의 정책이 치주질환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 41.6%, '관심 있음'이 30.3%, '관심 없음'이 16.2%, '매우 관심있음'이 8.2%, '매우 관심없음'이 3.7%로 나타났다. 이는 정 등<sup>16)</sup>의 연구에서 '관심 있음' 46.8%, '보통' 42.4%, '관심 없음' 5.9%, '매우 관심있음' 3.4%, '매우 관심없음' 1.5%, 천과 원<sup>17)</sup>의 연구에서 '관심 있음' 61.4%, '보통' 31.5%, '관심 없음' 7.1%와 유사하게 나타나 대체로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스켈링 경험은 구강건강에 매우 관심이 있는 경우 84.2%가 스켈링 경험이 있었고, 구강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경우 70.0%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관심이 보통인 경우 50.0%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심이 없다는 경우 37.3%와 매우관심이 없다는 경우 41.2%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등<sup>16)</sup>의 연구에서 구강건강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경우 71.4%, 관심이 있다는 경우 74.0%, 보통인 경우 48.3%, 관심이 없다는 경우 41.7%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에 매우관심이 없다는 경우 스켈링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강건강에 관심이 높을수록 스켈링 경험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상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스켈링의 필요성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스켈링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치주질환이 구강건강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스켈링의 효과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정기적인 스켈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일부 치면세마실습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반화하기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본 연구의 제언으로 정기적인 스켈링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과 요인의 해결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J보건대학 치면세마실습실을 방문한 스켈링 환자 462명을 대상으로 실태와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켈링의 경험 여부는 남자는 51.2%가 스켈링을 경험하였고, 여자는 62.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흡연자는 48.9%가 경험하였고 비흡연자는 59.8%가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56.5%가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기적 스켈링 여부는 남자는 13.7%, 여자는 19.2%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흡연자는 16.5%, 비흡연자는 16.1%가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16.2%만이 정기적으로 스켈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스켈링을 경험한 동기는 남자의 경우 '주위의 권유'가 36.2%, 여자의 경우 '본인의 결정'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37.9%가 본인의 결정으로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의 권유'가 34.1%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스켈링 경험이 없는 이유는 남자의 경우 '잘 몰라서'가 42.1%, 여자의 경우 3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39.3%가 '잘 몰라서', 27.4%가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9%가 '겁이 나서'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구강건강의 관심도는 남자의 경우 '보통'이 42.7%, 여자의 경우 '보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경우 41.6%가 '보통', 30.3%가 '관심 있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구강건강관심도에 따른 스켈링 경험여부는 구강건강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경우 84.2%( $p < .001$ ), 관심이 있는 경우 70.0%가 스켈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도록 치주관리를 포함한 구강질환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계속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박영민. 자일리톨 및 솔비톨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8; 22(3):239-248.
2. 김은주. 구강건강신념과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연구-치과병.의원 내원환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남:단국대학교 대학원;2001.
3. 김혜진. 산업근로자의 구강건강실태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대구:계명대학교 대학원;2000.
4.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서울:보건복지부;2004.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6.
6. 이선미, 김은주. 치과내원 환자들의 치주조직건강 인식도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2007;7(4):219-224.
7.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외4인. 공중구강보건학. 서울:고문사;2002:125-126.
8. 보건복지부. 2010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II. 조사결과보고서. 서울:보건복지부;2010:514-517.
9.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2007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2007).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2008:66.
10. 보건복지부.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V. 요약본. 서울:보건복지부;2004:95.
11. 정은경. 제조업 근로자의 스켈링에 대한 행태와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대구: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2004.
12. 심지은. 산업체 근로자들의 치주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석사학위논문]. 광주:조선대학교 대학원 ;2002.
13. 권미영. 치과 내원환자들의 구강건강수준과 구강건강관리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4):219-228.
14. 윤영주, 김경원, 황태윤, 이경수. 근로자의 치아 치면세마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구강보

건학회지 2009;33(3):432-440.

15. 송경희. 한국 성인의 건강 및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평가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한양대학교 대학원;2007.
16. 정정옥, 주은주, 우승희. 일부직장근로자들의 스켈링에 대한 인식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치위생교육학회지 2008;8(1):136-137.
17. 천석연, 원복연. 일부 직장인의 구강건강상식 및 스켈링에 대한 인식도. 한국치위생학회지 2011; 11(1):1-12.
18. 박정순, 이광희, 김선숙. 스켈링센터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보건관리 실태 및 인식도에 관한 조사. 원광보건대학 논문집 1990;13:191-198.
19. 김영선, 윤영주, 고은정. 일부지역 근로자의 스켈링 행태와 지식 및 구강건강신념과의 관련성. 치위생과학회지 2010;10(5):329-334.
20. 윤영주. 산업장 근로자의 치아스켈링에 대한 지식, 태도, 행위와 관련요인[석사학위논문]. 대구:영남대학교 대학원;2009.
21. 김영남. 한국 성인의 구강보건 인식에 관련된 요인[박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22. 노희진, 박순영. 우리나라 국민들의 치주질환 예방에 대한 비용편익에 관한 연구. 대한치주학회지 2002;27(1):50-65.